

하시엔다 교육구 한국어 이중언어반 개설

■ 시다레인 초·중학교서 첫 실시

미국 정규 학교 및 교육구 내 한국어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LA 동부의 하시엔다 통합교육구에도 한국어 듀얼 랭기지 프로그램(KDLP)이 도입되면서 한국어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시엔다 통합교육구(교육감·신시아 콜퍼)의 시다레인초·중학교 K-8(교장·엘렌 박)에서 한국어 이중언어프로그램 (Korean Dual Immersion Program)을 개설했다.



엘렌 박 시다레인초·중학교 교장이 지난 1월23일 열린 KEN 교육 세미나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015년 9월 세계한인교육자협회 (IKEN·회장: 엘레나 폴)은 하시엔다 통합교육구에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11월30일 마침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한국어 이중언어프로그램을 2016년 8월부터 시다레인초·중학교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한후 2016년 1월부터 유치원·1학년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엘렌 박 교장은 “한국어 이중언어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언어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에서도 월등하게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인 학부모 뿐 아니라 비한인 학부모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빨리 신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1학년은 각각 20명이 정원이며 한국학생과 타 인종 학생의 비율이 반반이다. 6학년의 경우 중국어·영어 이중언어 프로그램도 있다. 오는 8월에는 한국무용, 태권도, 동요 등 한국문화 클래스도 개설된다. 등록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만약 늦게 신청할 경우 수강을 못할 수도 있다.

▲등록: <http://bit.ly/1mXm4eq>
▲전화번호: 626-933-8001
▲이메일: eypark@hlpusdk12.ca.us

■한국어 이중언어프로그램의 장점

한국어와 영어의 학습비율이 50/50 모델로서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9년동안 한국어와 영어를 마스터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어 이중언어프로그램의 실효성은 언어학자들의 데이터에서 증명되었는데 즉 두가지 언어를 어려서부터 습득하다보면 학생들의 인지능력이 한 언어를 배운 학생들보다 월등히 강화된다고 한다. 수학, 과학, 역사 등 언어를 주로 사용하

는 과목에 관련된 내용도 한국어 영어로 배우으로써 전과목에 걸쳐 한 가지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

언어는 조기교육과 지속성이 중요한데 유치원부터 꾸준히 매일 두 가지 언어를 배우으로써 결국 원어만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인 2-3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으로써 부모와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여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무성은 한국어를 미국 안보에 중요한 언어

유치원·1학년 가을학기 각 20명 선착순 모집 한국어·영어 학습비율 50/50 능률 높아 한국무용·태권도 등 문화 클래스도 개설

로 분류하고 한국어에 능통한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 K-POP과 한국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미주에서 한국어를 쓰는 인구가 11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강생의 증가율이 140%로 다른 언어들에 비하여 가장 높은 증가를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며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한국의 경제력 증진과 한국 국가 브랜드 제고에 따른 한국어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능숙한 한국어 구사력은 그들이 미국 주류사회나 세계로 진출하는데 우수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치열한 직업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고급 한국어 습득은 한국어 교사와 정규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IKEN 한국어 온라인 커리큘럼의 특징

하시엔다의 한국어 이중언어프로그램에서는 IKEN에서 한국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한국어 온라인커리큘럼을 사용한다. 이것은 K-12 총 13 레벨을 커버하며 공통 학습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 의거하여 2012년에 개발된 온라인 교재이다. 온라인 교재와

인터넷이 없어도 자신의 컴퓨터에서 한국어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교재는 앱에서도 구동이 가능하여 iPhone이나 smart phone, tablet PC, iPad 등에서도 한국어 학습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책이다. (앱에서 설치가능하다) www.ikeneducate.org

3) 본 교재는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고급 (Intermediate to Advanced)까지로 잡고 있다. 또한 각 언어 숙련도 단계에서ACTFL이 정한 세 가지 의사소통 형태 (interpersonal mode, interpretive mode, and presentational mode)에 맞추었다.

5) 본 교재는 기존의 종이 교재가 줄 수 없는 특징들이 있다. 21세기 학습자들의 필요에 맞추어 각 과마다 동영상, 사진, 하이퍼 링크 등이 포함되어 있어 21세기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영상은 본문의 특정 과에 해당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내용 이해는 물론 학습자의 흥미를 높িয়ে 하였다. 각 과마다 많은 사진을 넣어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학습자에게 쉽게 다가가도록 하였으며, 단순히 글자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단어들은 ‘하이퍼 링크’를 통하여 그림으로 쉽게 단어를 익히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문 내용은 문자 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듣기 학습을 강화하였다.

6) 본 교재의 전 교과과정은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 문학, 한국 사회 및 경제, 이민 역사, 한국의 인물 등을 통하여 지루하지 않은 역동성 있는 한국어 교육을 표방하였다. 교재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미국 지도, 한국 지도, 성조기, 애국가, 아리랑, 무궁화, 한국 동요, 한국 가곡,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요약한 동영상 등을 각 레벨의 목차 페이지에 모아 쉽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박홍률 기자)

여름 방학 활용 성적부진 만회, 대입 로드맵 작성

■예비 11학년 학부모를 위한 타임라인

현재 10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본격적인 입시준비를 앞두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아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부족하게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음 가을 11학년에 들어서는 자녀들이 입시를 위해 플랜을 세우는 것처럼 학부모들도 똑같은 플랜을 세워 자녀와 호흡을 맞추며 준비를 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시기별 플랜을 소개한다.

1. 여름방학

11학년이 되기 전 여름방학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름방학 때 자녀에게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학교 성적이 기대 만큼 되지 않고 있다면 여름방학을 이용, 부족한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기초를 다지고, 11학년에 배운 과목들을 예습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학입시에서 모든 학년의 성적을 살펴보게 되지만 특히 11학년과 12학년의 성적은 매우 중요한 만큼 학교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10학년에 특별한 과외활동이 없다면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라도 자녀의 적성에 맞는 것을 골라 집중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남들 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번 방학 때 SAT 또는 ACT 시험준비를 하고 가을에 응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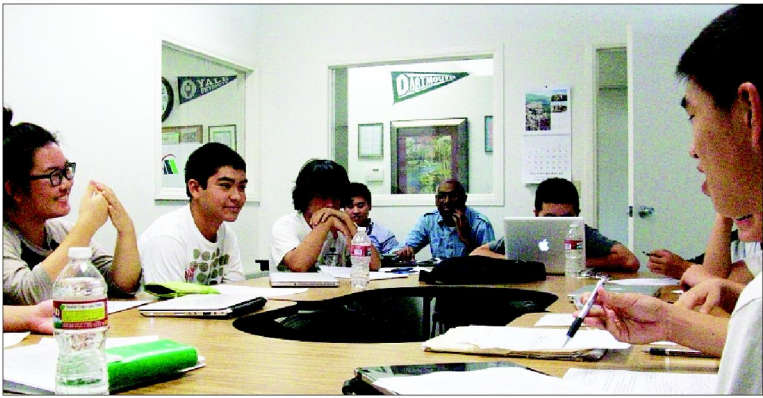
수 있다. 첫 시험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더 이상 응시하지 않고 다른 쪽에 시간을 더 늘리는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모들이 직접 연관된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학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학비가 어떻게 계산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각종 학비 보조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고, 특징이 저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한다.

2. 가을

자녀를 담당하는 학교 카운슬러와 자녀가 만나 향후 입시준비에 대한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녀가 11학년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학부모는 또 자녀가 11학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 단위 및 월 단위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이행토록 해야 한다. 특히 11학년 때 치르는 PSAT 시험은 내셔널 메리트 장학금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자녀가 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상문제 풀이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11학년을 보내면서 스스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와 격려를 함께 보내주는 것이다. 대신 부모의 의사나 의도가 너무 깊이



올 가을 11학년에 들어서는 자녀들이 입시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학부모들도 똑같은 계획을 세워 자녀와 호흡을 맞추며 준비를 해야 한다.

반영된다면 자녀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감을 심어주되, 너무 높은 기대와 목표를 가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다.

3. 겨울

한 번도 SAT 시험을 치르지 않은 자녀가 PSAT에 응시했다면 그 결과를 잘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내 보강하는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와 연계해 SAT 또는 ACT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모가 잘 이끌어야 한다. 그러면서 학교 과목 수강에 대해서도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아너스와 AP 등 도전적인 과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만약 SAT II(서브젝트) 또는 AP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면 여름방학 전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하도록 용기를 심어줘야 한다. SAT II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필수나 옵션 등 여러 형태로 입학사정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공부하고 시험

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입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과목이든 클래스가 막 끝날 때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시험을 뒤로 미룬다면 그동안 배운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겨울 방학은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학교 공부를 철저히 분석해 부족한 것들을 보강하는 복습하고 남은 학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한다.

4. 이듬해 봄

자녀와 함께 지원이 가능한, 아니면 입학하고 싶은 대학들을 찾아보며 어느 대학이 아이와 잘 어울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자녀의 현재까지의 성적 등 스펙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자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

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

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각종 칼리지 페어 및 학비보조 안내 행사 등에서 참석해 필요한 입시정보를 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 만약 가정의 형편이 허락한다면 봄에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을 직접 방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반대로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 대학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11학년을 마치고 들어가는 여름방학은 본격적인 수험생으로 전환하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낭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와 함께 미리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고 리스트를 만들어 정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SAT 또는 ACT 시험준비에서 과외활동, 에세이 초안 작성 등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것은 봄에 미리 신청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놓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여름방학은 입시준비를 위한 마지막 시간이란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지나 김
시니어 디렉터
어드미션 마스터즈
866-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